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ublic Reading Campaign: The Case of 'One Book, SeongBuk' Campaign in Seongbuk-Gu, Seoul

조 찬 식 (Chan-Sik Cho)*

목 차

- | | |
|--------------------------|---------------|
| 1. 서론 | 4.3 독서토론회 |
| 2. 대중독서운동의 이해 | 4.4 독서토론 아카데미 |
| 2.1 대중독서운동의 개념 | 4.5 작가와의 만남 |
| 2.2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 4.6 북스타트 |
| 3. '원 북, 성북'의 배경 | 4.7 북페스티벌 |
| 4. '원 북, 성북'의 내용 조사 및 분석 | 5. 토론 |
| 4.1 '한 책' 선정 | 6. 결론 |
| 4.2 '한 책' 선포식 및 독서릴레이 | |

초 록

대중독서운동이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운동이다. 대표적인 대중독서운동인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한 권의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복돋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2012 독서의 해'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서울시 성북구에서 실시된 대중독서운동인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사례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독서운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배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성북구의 대중독서운동인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내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분석·제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대중독서운동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일조하고자 한다.

ABSTRACT

A public reading campaign is a sociocultural movement that can stimulate a sense of community. The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as a typical public reading campaign, was established as a new reading paradigm by sharing cultural experiences among community residents through discussions after reading 'one book,' thus evoking a sense of commun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One Book, SeongBuk' reading campaign in Seongbuk-Gu, Seoul, which was awarded the title of '2012 Year of Reading' program. In line with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public reading campaign, looks into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One Book, SeongBuk' reading campaign in Seongbuk-Gu, and analyzes and pinpoint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ampaign. By so doing, this study aims at enhancing our understanding of the public reading campaign.

키워드: 대중독서운동,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원 북, 성북' 독서운동, 독서와 토론, 성북구
Public Reading Campaign,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OneBook, SeongBuk'
Reading Campaign, Reading and Discussion, SeongBuk-Gu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cho@dongduk.ac.kr)

논문접수일자: 2013년 4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5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5월 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01-221, 2013. [http://dx.doi.org/10.4275/KSLJIS.2013.47.2.201]

1. 서론

사회가 발전하면서 독서문화의 진흥과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독서가 개인이나 집단의 교육, 정보, 자아실현, 여가 등을 추구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지정하고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독서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독서력 향상과 독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독서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한 공동체가 선정된 책을 같이 읽고 상호교감하고 교류하는 등의 대중독서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독서가 개인의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영역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와 정서를 공유함으로써 인한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독서운동이란 그 역할과 기능은 매우 복잡적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방대하고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독서운동의 대표적인 노력이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독서운동이다.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1998년 미국 워싱턴(Washington)주의 시애틀(Seattle)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으로 지난 십여 년 동안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많은 지역사

회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한 권의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북돋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 대중독서운동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 2003년도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도시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확산되는 추세이다. 2003년에 한국도서관협회가 대중독서운동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충남 서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다음 해 순천시에서도 연계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그 후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시범사업이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었으며, 결국에는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도시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확대되었다. 또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독서토론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이나 독서관련 프로그램들과 병행되면서 본격적인 대중독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성북구에서 실시된 대중독서운동인 ‘원 북, 성북’ 독서운동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성북구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 7개의 구립도서관과 40여개의 작은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등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2011년에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대중독서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그 결과 2012년에는 대중독서운동의 고취를 위한 문화부 주관 공모에서 서울시를 대표하여 ‘2012 독서의 해’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중독서운동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개요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분

석을 통해 성북구의 대중독서운동인 '원 북, 성 북' 독서운동의 내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분석·제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대중독서운동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일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문헌조사, 현장방문, 그리고 사례조사를 수행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대중독서운동의 이해

2.1 대중독서운동의 개념

대중독서운동은 책을 매개체로 하나의 공동체가 같이 읽고 함께 토론하는 등의 지역사회 독서운동으로 구성원 간의 사고와 정서를 교류하는 대중운동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중독서운동은 동일한 지역의 구성원이 함께 책을 읽고 상호소통하며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찾아가는 활동으로 궁극적으로 문화적 균등화와 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0b; 한국도서관협회 2009). 이는 대중독서운동을 통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사고의 획일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사고와 정서상의 동질성과 이질감을 인식하고 인지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중독서운동의 의미가 각별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공간이라 간주하는 독서의 개념을 공중 또는 대중의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중세 이후 독서란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행위로 치부되었으며 독서와 관련된 개인적

인 느낌이나 감정의 표출이 크게 환영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중독서운동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책을 읽고 교감하는 공동체적 독서운동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에 사고의 다양성과 정서적 복합성을 교류하는 대중적 문화영역으로 그 범주를 넓힌 것이다.

이러한 대중독서운동에서 공감되는 몇 가지 기본전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독서운동은 대중, 즉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공동체' 또는 '커뮤니티(community)' 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역사회는 지리적, 행정적, 조직체적 기준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그 규모나 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대중의 개념 또한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형태를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다(윤정옥 2007). 결국 대중이란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계급, 직업, 학력 등의 사회적 구분을 따지지 않고 구성되며, 이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불특정의 다수인을 총칭하게 된다. 대중독서운동은 이러한 대중의 참여를 전제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대중독서운동은 '책'과 '독서'를 매개체로 한다는 점이다. 문화 자체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볼 때, 의사전달과정에서 매체(media)를 필요하게 된다. '책'은 일정한 목적, 내용, 체제에 맞추어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 놓은 것으로 인류 역사시대 이후 가장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독서는 책을 읽는 행위로서 독서를 통하여 읽기와 독해능력을 배양하고 사고의 다

양성과 유연성을 유도하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0a). 이러한 독서행위는 현대사회에서 전자매체와 영상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탐닉이 초래한 사고의 분절성과 단편성, 몰개성적, 비인간성으로 인하여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이용재 2009).

셋째, 대중독서운동은 상호 교감과 교류를 통한 공동체의식의 함양이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대중은 같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이른바 '고립된 대중'들이다. 그러므로 대중은 현실적인 정신적 공동체를 갖지 못한 채, 본질적으로 고립된 개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대개의 경우 행위에 대한 선택에 제한되어 있다(이용재 2006). 이에 대중독서운동은 독서운동을 통하여 대중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사회적 '운동'으로서 대중독서운동은 불가피하게 문화의 표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독서를 통한 대중의 상호교감과 교류는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공동체의식에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중독서운동이란 독서를 권장하고, 사람들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프라를 구축하는 유기적인 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대중독서운동이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양면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운동이라 개념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대중독서운동은 개인적 영역의 책이란 매체와 독서라는 행위를 대중화하여 사회구성원의 감정과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맞는 대중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대중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2.2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이하 '한 책')' 독서운동은 대중독서운동의 대표적인 노력이다(윤정옥 2004, 2005, 2008a, 2008b; 이용재 2005, 2008; 조미아 2007; 황은주 2006). '한 책' 독서운동은 한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한 책을 온 구성원이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공동의 문화적 체험을 갖게 하며 독서와 토론의 문화를 북돋우고자 하는 것으로, 독서행위의 범위를 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연극, 영화, 전시회 등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교류와 공유를 도모하도록 한다는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한 책' 독서운동은 미국 워싱턴(Washington)주의 시애틀(Seattle)에서 시작되었다. '한 책' 독서운동은 1998년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워싱턴 도서 센터(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가 주관한 '시애틀 온 시민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비롯되었으며, 당시 해당 프로젝트에 '한 책'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핵심에 '한 책'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는 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선정된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도록 권장함으로써, 독서운동이 대중화되고 주민들 사이에 독서와 토론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개혁'적인 발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대중독서운동이 '한 책' 독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2001년에 미국 일리노이(Illinois)주 시카고(Chicago)에서 시작된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이다. '한 책, 한 시카고' 운동은 시카고 시와 관내 78

개의 공공도서관이 주도하여 온 시민이 Harper Lee의 풀리처상 수상작인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를 읽도록 유도하고 독서주간에 토론하도록 주관한데서 비롯되었으며, 책과 다양한 매체 및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단체들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얻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아 대대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윤정옥 2004). 그리고 무엇보다 '한 책, 한 시카고'를 통하여 '한 책'과 '한 도시'에 대한 개념이 연관되어 자리잡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것이다.

이후 '한 책' 독서운동은 2003년에는 미국 38개주 90개 도시에서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발전하였으며, 2004년에는 49개주 239프로젝트로 그리고 2005년에는 51개주 전역에서 300여개의 프로젝트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b). 나아가 '한 책' 독서운동을 모형으로 하여 2006년 미국의 10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던 대중독서운동인 'The Big Book Read'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한 권의 선정된 책을 읽고 상호교감하고 교류하는 전국적인 대중독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윤정옥 2009).

이러한 '한 책' 독서운동의 전개는 미국 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2002년부터 라디오 방송국인 CBC Radio의 주관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한 책'을 함께 읽는 독서캠페인인 '캐나다가 읽는다(Canada Reads)'를 진행해 오면서 대중독서운동의 범위를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한 책'운동은 비슷한 시기에 호주의 브리즈번(Brisbane), 영국의 브리스

톨(Bristol)과 스티브니지(Stevenage) 등을 기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세계적인 대중독서운동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이용재 2009).

우리나라에서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 2003년도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확산되는 추세이다. 2003년에 한국도서관협회가 대중독서운동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충남 서산에서 "서산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다"이라는 주제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다음 해 순천시에서도 "책 한 권, 하나의 순천"이라는 주제로 연계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그 후 대중독서운동 시범사업이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었으며, 결국 우리나라의 '한 책' 독서운동은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도시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중독서운동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대되었다.

다음의 <표 1>은 우리나라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주요 현황이다(조미아 2007).

<표 1>에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선정된 한 책에 관한 독서토론은 물론이고, 그 외에 선정된 도서나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작가초청강연회, 독후감 공모전, 독서골든벨, 작가와의 만남, 북스타트(Book Start), 북페스티벌(Book Festival), 독서 릴레이, 연극공연 등을 진행하여 지역 내 대중독서운동의 효율성과 상승효과를 높이고 있다(윤정옥 2007; 조미아 2007). 이는 토론문화가 발달한 외국의 경우 선정된 독서에 대한 토론에 집중하는 반면, 우리나라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대중독서운동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1〉 우리나라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주요 현황

지역	프로그램명	사업주체	주요운영주체	개시년도
서산	서산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다면	서산시립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	2003
순천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순천시립도서관	지방자치단체	2004
부산	한 책, 한 부산=한 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부산	부산시교육청	교육청	2004
서울	책읽는 서울-기초 예술, 책부터 시작이다	서울문화재단	시민단체	2004
원주	원주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으로 뭉치자	원주투데이, 생명원주21	시민단체	2004
익산	한 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익산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2005
청주	책읽는 청주-한 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청주	청주시립정보도서관	공공도서관	2006
포항	하나의 책 하나의 포항	포항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2006
여수	한 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여수	여주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2007
서귀포	함께 읽는 책 한 권 힘으로 서귀포시를 바꾸자	서귀포시민의 책함께 읽기운동	시민단체	2007
대전	책으로 행복한 대전	희망의책 대전본부	시민단체	2007
김해	책읽는 도시 김해	김해시	지방자치단체	2007

3. ‘원 북, 성북’의 배경

성북구는 2011년에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중독서운동으로 ‘한 구(區), 한 책읽기’를 표방한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나아가 2012년에는 더욱 확대된 제2회 ‘원 북, 성북’을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대중독서운동은 2005년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한 ‘한 도서관, 한 책읽기’ 운동을 들 수 있는데, 2005년 ‘책 읽는 서울’의 일환으로 열여섯개 공공도서관이 참가하고, 2006년에는 스물여섯개의 도서관이 참가하여, 각 도서관은 각기 선정한 ‘한 책’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독서운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 중심의 독서운동은 해당 ‘도서관의 지역사회’를 그 범위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한 책, 한 도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독서운동이 행정상의 지역사회를 대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인 구(區) 주도로 진행된 대중독서운동

은 그 과정과 결과에서 다른 지자체의 대중독서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서울의 도심과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지역인 성북구는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1988년 5월 1일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를 시행하여 자치구로 승격되었다. 거주 인구가 약 50만 명에 달하는 성북구는 북한산 국립공원 및 대학 7개교가 위치하고 교육기관 66개소, 의료시설 555개소, 종교시설 467개소, 외국대사관저 38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문화적 기반이 든든한 지역자치단체이다. 그리고 성북구는 구면적의 70%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인 미아로, 동소문로, 종암로 등이 확장되었으며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주택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을 지향하며 나날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성북구에는 2002년 성북정보도서관이 건립된 이래 관내 7개의 구립도서관과 40여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등 대중독서운동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구립도서관은 성북정보도서관(상월곡동), 아리랑정보도서관(돈암동), 해오름어린이도서관(돈암동), 종암동 새날도서관 등 4개관이 성북문화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달빛마루도서관(하월곡동), 미리내도서관(석관동), 서경로 꿈마루도서관(정릉동) 등 3개관이 느티나무 도서관 재단에 의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개의 새마을 문고를 포함한 40여개의 작은도서관이 성북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독서를 통한 문화창달과 평생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북구는 한 지역 사회에서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토론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화합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대중독서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한 책을 통하여,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생활규범이 형성되며, 네트워크가 구축된 지역사회에서 독서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체 회복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에 성북구는 2011년 2월에 구청 내에 구정기획단 2명, 문화체육과 직원 2명, 성북정보도서관장 외 사서 1명으로 구성된 준비팀을 구성하여, ‘한 책’ 독서운동에 관하여 연구하고 청주를 직접 방문하여 “책 읽는 청주-한 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청주”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점화하였다. 이러한 준비팀의 연구와 방문보고서는 기존 연구를 활용하고자 지역 대중독서운동의 장단점을 반영하는 등

성북구의 ‘한 책’ 독서운동의 사업취지, 사업방향, 사업추진 코스, 홍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요를 담고 있어 만반의 준비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팀의 활동을 바탕으로 ‘성북구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교육·문화수준 향상 및 주민 공동체문화 형성 도모’를 위한 효율적인 준비를 위하여 2011년 3월 22일 ‘책 읽는 성북구민독서운동 추진단’이 구성되었다. 성북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계인사 13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성북구의 ‘한 책’ 독서운동의 실시를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 설정, 추진주체 및 추진기간, 그리고 예산 및 홍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통하여 성북구의 대중독서운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11년 6월 23일에 공식적으로 발족되었다. 성북구의 책 읽는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성북구청장의 직속기구로 발족한 ‘협의회’는 독서진흥에 관심있는 전문가, 교수, 학교장, 학부모대표, 출판사대표, 시민단체, 역량이 있는 전문가 등 총 9인과 당연직인 성북정보도서관장과 아리랑도서관장 등 2명의 구립도서관장과 2명의 구청담당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협의회’의 기능은 ①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여건 조성 및 지원, ② 독서운동,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③ 구민들과 작가와의 만남,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④ 도서관의 독서 및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이러한 ‘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성북구의 대중독서운동의 공식 명칭이 “책 읽는 성북, 하나 되는 성북-‘원 북, 성북’ 운동”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성북구청의 지원과 관내 구립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활발히 전개되었다. ‘협의회’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통하여 성북구민들이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한 책을 매개로 주민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공동체 복원에 이바지하는 대중독서운동의 목적을 도모하고, 책 읽는 성북 조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독서운동 및 북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즐거운 책 읽기 문화 확산 및 구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증대에 일조하였다.

성북구에서 2011년과 2012년에 진행된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으며, 이러한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성공적인 결과 2012년에는 대중독서운동의 고취를 위한 문화부 주관 공모에서 서울시를 대표하여 ‘2012 독서의 해’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표 2>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내용

년도	‘원 북, 성북’ 프로그램
2011	한 책 읽기 및 독서토론회, 독서릴레이, 독후감쓰기 대회, 북페스티벌, 북콘서트, 독서골든벨
2012	한 책 읽기 및 독서토론회, 독서릴레이, 독후감쓰기 대회, 북페스티벌, 독서토론아카데미, 서평공모전, 작가와의 만남, 북스타트

4. ‘원 북, 성북’의 내용 조사 및 분석

4.1 ‘한 책’ 선정

대중독서운동에서 ‘한 책’을 선정하는 목표와 원칙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것은 ‘한 책’의 선정이 지역주민 참여의 범위, 참여의 정도, 독서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책’의 선정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한 책’ 선정의 기준이 지역적 특성을 가지거나 가급적 지역 출신의 작가를 선호하거나, ‘모든 연령에게 읽힐 수 있는 책’을 선정하거나, ‘토론이 가능한 도서’를 강조하는 등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도서선정의 목표와 원칙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게 된다.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1년 7월 성북구의 대중독서운동인 ‘원 북, 성북’의 ‘한 책’을 선정하기 위한 원칙을 설정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도서로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타겟으로 하며, 공동체 복원 및 화합을 위한 지역주민 공동의 관심을 담은 도서로, 토론회 및 세부행사 진행에 부합하는 주제 도출이 가능한 도서로 선정원칙을 도출하였다.

이에 성북구의 대표적인 구립도서관인 성북정보도서관과 아리랑정보도서관에서 각각 10권씩을 추천하였고, 2011년 8월에 ‘협의회’에서 다시 5권의 최종 후보도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후보도서는 「가족입니다」(김해원 외), 「나는 무슨 일하며 살아야 할까」(이철수 외), 「불편해도 괜찮아」(김두식),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장일순),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등이었다.

이후 '한 책'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길거리투표와 온라인투표가 진행되었다. 길거리투표는 성북구청 및 유관기관 17개서, 초등학교 8개소, 대학도서관 7개소, 거리 및 다중이용시설 4개소 등 총 55개소에 스티커 투표관을 설치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온라인투표는 구청홈페이지, 도서관홈페이지, 성북뉴스레터, 카페 및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 책' 선정을 위한 총 투표수는 9,599표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3>, <표 4>와 같다.

다음과 같은 투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도서관 및 온라인투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타 기관이나 시설의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마당을 나온 암탉』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 8월 25일 '협의회' 회의를 거쳐 지역주민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마당을 나온 암탉』이 최종 결정되었다.

처음 시행되었던 2011년과 달리 2012년에는

12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관계로 인해 '원 북, 성북'의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한 책' 선정도 2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의 '한 책' 선정은 관내 구립도서관의 추천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1,000명의 주민의 추천까지 총 85권의 도서가 추천되었다. 이후 협의회는 3월 회의에서 20권을 선별하였으며, 4월 회의에서 『가족입니다』(김해원 외), 『꽃 같은 시절』(공선옥), 『그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김려령) 등 3권의 후보도서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위한 모바일투표를 포함한 온라인투표와 지하철역 등에서 실시한 현장투표에 총 7,697표가 집계되었으며, 그 결과 가족소설인 『가족입니다』(김해원 외)가 2012년 '원 북, 성북'의 도서로 최종 선정되었다.

대중독서운동에서 '한 책'의 선정이란 도서의 전문성이나 예술성이란 측면과 대중성과 다양성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아무리 학문적 또는 문학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해도 다양한 일반 대중이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렵다면 대

<표 3> 2011년도 '한 책'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 결과(Ⅰ)

투표장소 및 방법	구청, 도서관, 유관기관	대학도서관	초등학교	거리 및 다중이용시설	온라인투표	합계
투표수	5,079표 (52.9%)	993표 (10.3%)	1,701표 (17.8%)	1,392표 (14.5%)	434표 (4.5%)	9,599표 (100%)

<표 4> 2011년도 '한 책'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 결과(Ⅱ)

후보도서	마당을 나온 암탉	불편해도 괜찮아	가족입니다	나는 미처 몰랐네...	나는 무슨 일을 하며...	합계
투표수	5,451표 (56.8%)	1,176표 (12.2%)	1,104표 (11.5%)	958표 (10.0%)	910표 (9.5%)	9,599표 (100%)

중독서운동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된다. 또한 너무 대중성을 고려한 ‘한 책’ 선정은 오히려 대중독서운동의 질과 격을 저하시킬 수 있다. ‘원 북, 성북’의 경우 ‘한 책’의 선정이 협의회의 여과과정과 주민들의 호응도를 적절히 접합하여 대중독서운동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 경우라 할 것이다.

4.2 ‘한 책’ 선포식 및 독서릴레이

대중독서운동에서 선정된 ‘한 책’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또 주민들이 공유하는 과정이 ‘한 책’ 선포식 및 독서릴레이이다. ‘한 책’ 선포식은 선정된 ‘한 책’에 대한 공식적인 공지란 측면 외에도 계획하고 진행되는 모든 독서운동 과정의 공식적인 시작이란 점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독서릴레이는 선정된 ‘한 책’을 개인 및 가족, 관내 학교 단위, 직장·그룹별 릴레이를 통하여 도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독서운동의 대중화라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도모하게 된다.

‘원 북, 성북’의 ‘한 책 선포식’은 각각 2011년 9월 3일과 2012년 5월 29일에 구청에서 실시되었다. 구청장, 구의원, 관내 도서관 관계자, 토론그룹, 독서릴레이 참여 지역주민 등 약 200명이 참가한 ‘한 책 선포식’은 선정된 ‘한 책’의 공표 외에도 독서릴레이 선발주자 및 토론그룹 대표자에게 ‘한 책’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토론,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2012년에는 북콘서트와 축하공연이 열려 ‘한 책 선포식’을 통한 대중독서운동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었다.

독서릴레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신청자나 릴레이팀 중 대표주자에게 ‘한 책 선

포식’에서 선정된 ‘한 책’을 전달하면서 출발되었다. 개별 주자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였으며, 릴레이팀은 주로 관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기존의 독서회의 활성화에 일조하였다. 2011년 독서릴레이에서 릴레이팀은 150팀에 릴레이주자는 172명이었으며, 2012년에는 210팀에 릴레이주자는 294명이 참여하였다. 정해진 기간 동안 가족, 이웃, 친구에게 전달하여 ‘한 책’을 돌려 읽은 후에는 회수하여 관내 도서관이나 마을문고 등에 기증되었다.

선정된 ‘한 책’을 선포하고 독서릴레이를 진행하는 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행사’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대중독서운동에서 시간적인 요소가 무시되고 지역사회에서 공감대 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 책’ 선포식 및 독서릴레이에 참여하는 타켓 대상을 정교화하고 구체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주민의 참여와 호응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3 독서토론회

독서토론회란 책과 독서를 매개체로 하여 독자들 자신과 환경에 대하여 사고하고 판단한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으로, 독서토론회를 통하여 공동체적 생각과 경험을 교감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독서토론회는 팀을 구성하는 소모임 그룹별 토론회와 다수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규모에 관계없이 이러한 독서토론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와 독서토론회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과 기술이 요구된다.

성북구의 '한 책' 독서 그룹별 토론회는 관내 도서관들과 학교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그룹별 토론회 토론팀은 평균인원이 4-5명으로 2011년에는 66개팀에 213명이 2012년에는 71개팀에 373명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 '한 책' 독서 그룹별 토론회에 등록한 66개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한 책 특독!!!'이라고 명명된 '한 책' 대토론회는, 그룹별 토론회와 달리, 독서릴레이 주자와 독서토론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독서토론 전문가와 토론패널들과 함께 '한 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구청의 강당에서 진행된 대토론회는 2011년에 79명이, 2012년에는 94명이 참가하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주변의 권유'와 소개로 참가하였으며, 행사 후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의 <표 6>, <표 7>과 같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한 책' 대토론회는 그룹별 토론회와 달리 독서토론이 한정된 참가자가 열린 공간에서 산만함과 소통의 어려움 가운데 진행되어 개선과 보완의 여지를 남겼지만, 다수의 주민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는 대토론회를 통하여 대중독서운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독서토론에서는 주민의 참여와 팀의 구성 그리고 독서토론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대중독서운동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원 북, 성북'의 독서토론회는 초기부터 사전조직화를 통해 다

<표 5> 2011년도 '한 책' 독서 토론(그룹별 소토론) 현황

구분	초등학교 어머니회	중학생	대학생	가족/친구팀	도서관 동아리	도서관/구청직원	종교단체	시민단체
팀(66)	8	18	2	7	18	9	1	3

<표 6> 대토론회 참가자(52명) 만족도 조사

설문 내용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강사 진행	9	29	13	1
진행 요일 및 시간	1	11	25	15
진행장소	16	24	6	6

<표 7> 참가자 의견

좋은 점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발표를 통해 색다른 경험과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었음 * 성북구민의 참여의식이 높음 * 새로운 만남과 정서표현, 다양한 의견과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음 * 자신을 돌아본 점, 새로운 만남의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토론 시간이 적었음 * 토론발표 때 분산되어 분위기가 어수선했음 * 토론회 시간의 조정 및 시간 엄수 * 논제에 대한 사전공지가 필요함 * 전체적 공간배치가 불편함 * 각 그룹이 밀접하여 토론에 집중력 저하

양한 토론그룹을 구성하면서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협의회' 구성원들이 관내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지역을 방문하여 토론그룹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원활한 독서토론을 위한 토론워크북이 제작·배포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책의 소개, 토론의 방법, 토론질문, 참고자료 등을 담아 독자와 토론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보다 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독서토론회의 성패는 사전준비에 따라 갈라지게 된다.

4.4 독서토론 아카데미

'원 북, 성북'의 독서토론 아카데미는 독서토론 리더 양성 및 독서토론 내실화를 위하여 2012년 4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독서토론 아카데미는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독서토론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과정으로, 2011년 '한 책' 독서토론회 결과 독서토론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리더들의 필요성에 따라 '한 책'을 읽고 토론할 독서회나 북클럽 등 독서토론모임에게 체계적인 독서토론에 관한 지식과 실습을 하고자 개설되었다. 독서토론 아카데미 수료자들은 '원 북, 성북' 독서토론 모임의 리더로 활

동하게 되며, 주민들의 독서 생활화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독서토론의 이론 및 실습을 통한 독서모임 운영방법 등을 교육하는 독서토론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표 8>과 같다.

독서토론 아카데미는 총 3개반(월, 수, 금요일)으로 운영되었으며, 주 2회 그리고 총 6주에 걸쳐 15시간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성북구청과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성북구민 200명이 등록하여 참여하였으며 그 중 145명이 수료하였다.

독서토론 아카데미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설된 강좌이기 때문에 수료율(73.2%) 및 만족도와 관심도가 높았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자발적인 독서토론 소모임을 구성하여 2012 '원 북, 성북' 독서운동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독서토론회에 리더와 참여자로 활동하여 대중독서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독서토론 아카데미 수료자들이 정기적으로 토론할 공간이 확정되지 않거나, 독서토론을 위한 중심 주체의 부재 등 모임의 지속성이 어려우며, 사후관리 차원으로 심화교육 또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독서토론문화의 확산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

<표 8> 독서토론 아카데미 교육과정

구분	주제	주요 내용
1강	토론이란 무엇인가?	토의와 토론, 독서토론 이해 및 유형 등
2강	독서와 토론	독서 이해, 독서유형, 자녀독서지도법 등
3강	독서토론의 리더(reading)	토론을 위한 책읽기 등
4강	독서토론의 리더(writing)	토론을 위한 글쓰기, 경청, 질문, 리더십 등
5강	독서토론의 리더(speech)	토론을 위한 말하기, 진행실습 등
6강	독서토론 실습	찬반토론법, 분임토론법 등

〈표 9〉 마을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의 내용

구분	내용
행사기간	2012년 6월 - 9월
행사회수	총 25회[6월(13), 7월(10), 8월(1), 9월(1)]
참여기관	각급학교, 학부모회, 독서회, 도서관, 새마을문고, 복지관 등 총 15개 기관
대상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이용자, 교직원 등
참여작가	김해원 작가 외 총 14명
참석인원	회당 30-190명, 총 2,123명

4.5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만남은 저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하여 저술동기와 의도를 작가로부터 직접 전달 받는 프로그램으로, 책에 대해 보다 생생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북구에서는 2012년에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기관들을 대상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대중독서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도서관을 통해 작가와의 만남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작가를 섭외하여 지역 내 기관에 강연과 토론을 펼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작가와의 만남에는 ‘원 북, 성북’의 ‘한 책’인 『가족입니다』의 공저자인 김해원, 김혜연, 임어진, 임태희 작가들 외에 많은 작가가 초청되어 관내 학교나 도서관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마을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마을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은 성북구 관내의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지역사회주민 중심의 독서프로그램으로써, ‘원 북, 성북’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대중적인 독서문화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총 25회에 걸친

‘작가와의 만남’ 중 13회가 초·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되어 동화작가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것과 대중적인 책의 작가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므로 유명작가 풀(pool)을 구성하거나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장르를 망라한 다양한 작가와의 만남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등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6 북스타트

북스타트(Book Start) 운동은 1992년 영국 버밍햄 지역에서 아기 때부터 책을 가까이함으로써 책 읽는 습관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로 시작되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시민운동이다. 생후 7~9개월이 지난 유아의 부모에게 그림책과 독서요령 책자가 들어있는 꾸러미를 선물로 주는 것으로 시작된 북스타트 운동의 결과 북 스타트 운동의 혜택을 본 유아들은 독서 습관이 붙었고, 도서관 이용, 북클럽 가입률이 현격히 높았다.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읽고 쓰는 능력과 수치계산 능력이 훨씬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청소년으로, 중국에는 책 읽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책과 함께 인생 시작’이라는 주제와 함께 실시된 성북구의 북스타트 운동은 관내 도서관을 통하여 영아에게 출생과 동시에 그림책을 나눠주고, 책과의 친밀감을 조성하여, 독서를 평생습관으로 만들어가자는 구체적인 목표 아래, 북스타트에 회원 등록한 생후 3-35개월의 유아에게 영유아용 그림책, 북스타트 회원증, 북스타트 가방, 안내서 등의 ‘책꾸러미’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북스타트 특강을 통하여 유아독서와 부모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북스타트 데이(Book Start Day)’의 ‘책이랑 놀자’를 통하여 아이들이 책과 친근해지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2011년 성북구 북스타트의 현황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2011년 성북구 북스타트 현황

연령기준	프로그램	대상자
3개월-18개월	북스타트 꾸러미	5,700
19개월-35개월	북스타트 플러스 꾸러미	6,460
계		12,160

특히 성북구의 북스타트 운동은 도서관방문 경험이 적은 소외계층을 위하여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통해 사업 초기보다 많은 꾸러미 배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성북구청 및 보건소 등지에서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책을 매개로 아이와 소통, 교감할 수 있도록 독서육아 부모특강 및 영유아 예방접종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이후 각 구립도서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활동가가 진행하는 후속 책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추후 주민센터나 복지협의회 등과의 협업을 통

하여 정보취약계층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4.7 북페스티벌

북페스티벌은 ‘한 책’ 독서운동과 연계된 문화프로그램으로 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단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행사이다. 이러한 북페스티벌은 독서토론 중심의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기존의 다양한 도서관 행사들을 결집하여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대중독서운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페스티벌은 책과 독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북페스티벌이 주민참여형 지역축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도서관, 출판사, 독서관련 기관, 교육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원 북, 성북’의 일환으로 진행된 성북구 북페스티벌은 “주민이 독서의 즐거움과 자부심, 화합의 정을 느끼는 행사”라는 주제 아래, 첫째,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책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독서진흥효과를 제고하고, 둘째, 축제의 즐거움을 높이기 위하여 아이들과 어른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북페스티벌 자체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셋째, 주민 결속 및 주최 기초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

여 주민을 배려하는 마음과 수준 높은 행사를 통한 성북구민으로서의 자부심 고취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원 북, 성북’의 북페스티벌은 2011년에는 10월 9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길음뉴타운 내의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성북구립도서관, 새마을 문고, 도서관연합체, 관내 교육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각 기관과 업체는 중앙무대를 중심으로 부스를 마련하고 전시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성북정보도서관에서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직지·목판 체험, 다문화동화책 읽어주기, 클레이 만들기, 동화구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 마을 작가·작품 전시, 대출베스트, 우리마을 U-도서관 등의 전시를 실시하였다.

성북구의 2011년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주민은 약 2,000명으로 각 부스별 방문자는 연인원 6,99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북페스티벌의 장소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민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이며, 아이들만이 아닌 아이들과 부모가 가족단위로 접근하기 편리했기 때문이다. 또한 16개 기관에서 운영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14개 기관에서 펼쳐진 전시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에 따라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성북구의 2012년 북페스티벌은 9월 5일(토)에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삼선공원에서 진행되었다. 북페스티벌의 시간은 주말 오후인 점을 감안하여 북콘서트 등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함이고, 삼선공원은 조선말의 최고군사기관이자 서울시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된 삼

군부총무당(三軍府總務堂)이 위치한 문화적 공간으로 대중독서운동의 문화적 상징성을 살리고자 결정되었다.

“책 숲에서의 하루”란 부제로 거행된 2012년 북페스티벌은 전체공간을 십진분류 주제관으로 구분하여 장소가 주는 자연적 멋스러움과 페스티벌 공간을 하나의 도서관으로 연상할 수 있게 배치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북페스티벌에는 구립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 업체 등 17개의 기관들이 십진분류에 따른 10개의 주제관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예를 들어, 맑은숲 독서치료연구소는 철학(100)주제관에서 마음약국을 운영하고 독서치료 전시를 하였으며, 새날어린이도서관은 예술(600)주제관으로 미니미술관에서 그림책 원화전시, 만화방, 예술장터(페이스 페인팅, 사람 동상 등) 등의 행사를 하였다. 그리고 성북구의 2012년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주민은 연인원 7,224명으로, 역시 가족 단위의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성북구의 2012년 북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주민의 높은 참여 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이미 ‘원 북, 성북’의 2011년도 북페스티벌을 통한 노하우의 축적으로 전체적인 운영과 진행이 원활할 수 있었다는 점, 둘째, 삼성공원이 성북구의 지형상 전체 주민의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화적 의미가 담긴 어린이 친화적인 장소인 점이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대중성을 높였다는 점, 셋째, 행사장을 십진분류에 맞게 배치하고 주제에 맞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도서관과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5. 토론

지금까지 대중독서운동의 개념과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패를 바탕으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살펴보았다. 2011년에 시작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2년에 걸친 대중독서운동에 주민참여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한 내실화의 측면에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주체의 단호한 의지이다.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은 2010년 지역사회의 문화적 창달을 강조한 구청장의 취임 후에 개념화되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가운데 유지되고 발전되었다. 특히 대중독서운동을 통한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이 서울시의 기초단체 중 처음 시행되었음에도, 행정주체인 구청의 강력한 행·재정적인 지도와 지원이 뒷받침된 것이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원활한 진행에 커다란 버팀목이 된 것이다. 이러한 행정주체의 강력한 의지는 상대적으로 행·재정적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한 책’ 독서운동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 차이를 초래한다.

둘째, 운영주체의 부단한 노력이다. 책이나 독서와 관련된 연구자, 실무자,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성북구의 ‘책 읽은 성북 추진협의회’는 ‘원 북, 성북’의 기획단계부터 매년 10여 차례의 모임을 통하여 연구와 실사 등을 바탕으로 개념, 방법, 단계 등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구청장의 지원 아래 민·관 거버넌

스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을 추진해 온 ‘협의회’는 사전조직화 작업, 홍보 및 주민의 참여 유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점검 등 ‘원 북, 성북’ 독서운동 전 과정의 각 단계별 진행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원 북, 성북’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였다.

셋째, 독서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이다. ‘한 책’ 독서운동이 선정된 ‘한 책’에 대한 독서토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윤정옥 2007; 조미아 2007). ‘원 북, 성북’의 경우 독서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독서토론 아카데미’가 개설되었으며, 북페스티벌의 운영방식이 ‘십진분류’를 응용하여 진행되었고, ‘작가와와 만남’의 영역이 관내 모든 기관과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었으며,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는 것은 독서관련 프로그램이 진화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중독서운동이 지역사회의 구성과 특성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도서관 네트워크의 활성화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이 미진한 상태이다(이용재 2009). 그러나 성북구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이 없으며, 위탁된 도서관을 포함하여 7개의 구립도서관이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 상호유기적으로 ‘원 북, 성북’ 독서운동에 참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원 북, 성북’ 독서운동 중 많은 프로그램이 기존에 공공도서관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독서운동에서 도서관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구립도서관과 마을문고 등 작은 도서관 대표자들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함께 계획하고 진행했던 점 또한 도서관 네트

워크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원 북, 성북' 독서운동에 기여하게 되었다.

다섯째, 교육기관의 효율적 활용이다. '사람이 희망인 도시'를 표방하는 성북구에는 66개의 교육기관(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3개교, 대학교 7개교) 등 많은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교육자원은 '원 북, 성북' 독서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각급 학교를 통한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홍보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참여로 독서토론, 독서릴레이, 북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며, 행사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이 학생들만을 타겟으로 한 독서운동은 아니지만, 풍부한 교육자원과 효율적인 활용은 '원 북, 성북' 독서운동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위와 같은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특징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대중독서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독서운동은 철저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중의 개념이 구성원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듯이, 지역사회분석은 지역 주민의 교육, 문화, 정보에 대한 요구와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대중독서운동의 방향과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의 교육적, 지리적 환경 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면 대중독서운동은 '행사를 위한 행사'로 흐르게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괴리감을 조성하고 무관심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대중독서운동은 기획의 단계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비록 '한 책'에서 비롯된 독서운동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성이 요구되거나 보완점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대중독서운동은 초기부터 그 범위와 틀에 맞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고 상호간의 연계성과 관련성에 맞게 기획되어야 효율적인 진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대중독서운동은 지역내 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중독서운동은 관내의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독서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문화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함께 계획하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기관의 협력이 단순히 외형적이고 양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관리하고 점검해야 대중독서운동의 참의미를 찾을 수 있다.

넷째, 대중독서운동은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대중독서운동의 핵심은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주민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홍보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홍보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범위는 대중독서운동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대중독서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대중독서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의 지원을 얻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으로,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중독서운동 기반의 확충이다. 대중

독서운동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거나 진공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독서운동의 일상화를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일상적인 독서활동과 토론이 촉발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꾸준히 다져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중독서운동에 대한 해당 지역작가들이 도서관이나 언론매체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동기부여를 통하여 독서운동의 일상화를 유도하거나,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일상적인 독서운동과 토론이 활성화된다면 대중독서운동의 최적화와 극대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섯째, 대중독서운동은 지역에 맞는 전략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아무리 대중독서운동이 대중성을 갖는다고 해도 참여하는 계층과 구성원의 수준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인 지역사회분석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들 간에 상호연관성을 높인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중독서운동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대중독서운동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국내외적 확산을 바탕으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배경과 내용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서울시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구(區) 단위

행정주체가 추진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한 책'을 선정하여 선포하고 독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외에도 독서토론 아카데미의 개설, 찾아가는 '작가와와의 만남', 북스타트 운동의 확대, 북페스티벌의 개최 등 책 또는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통한 성북구의 지역공동체 복원과 대중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자평되었다.

이러한 성북구의 대중독서운동인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특징으로는 행정주체의 의지, 운영주체의 일관적인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도서관 네트워크의 활성화, 풍부한 교육자원의 활용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대중독서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철저한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계획, 타 기관과의 협력, 홍보활동의 강화, 독서활동과 토론의 기반확충, 전략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안되었다.

오늘날 대중독서운동의 활성화와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기대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대중독서운동은 단순한 독서의 의미뿐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과 동질감 확립을 위한 상호 이해 증진과 문화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주도하는 대중독서운동의 그 역할과 범위가 지극히 국소적이고 제한적이며, 실제적인 대중독서운동의 파급효과는 기대수준을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이다. 따라서 대중독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각각의 지역에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독서운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여건에 따라, 운영주체에 따라, 목적과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윤정옥 2007:

이용재 2009; 조미아 2007). 그러므로 대중독서운동이 보편성과 대중성을 띄기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과 특성에 맞게 계획되어야 하며, 단순히 물리적이고 양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접근까지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문화체육관광부. 2010a. 『독서단체 등의 프로그램 및 활동 현황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2] 문화체육관광부. 2010b.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3] 윤정옥. 2004.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45-66.
- [4] 윤정옥. 2005.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7-44.
- [5] 윤정옥. 2007.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류: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5-32.
- [6] 윤정옥. 2008a.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63-81.
- [7] 윤정옥. 2008b. 미국 대학의 "한 책" 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85-107.
- [8] 윤정옥. 2009. 미국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311-333.
- [9] 이용재. 2006. 한국 독서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 17(1): 5-25.
- [10] 이용재. 2008.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단계와 발전전략: '원북원부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247-265.
- [11] 이용재. 2009.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5-23.
- [12] 조미아. 2007. 한국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대한 고찰: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중심으로 『도서관』, 62(2): 78-113.

- [13]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보고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4] 한국도서관협회. 2009. 『독서 및 도서관 진흥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세미나』.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5] 한국도서관협회. 2010. 『책 읽는 도시: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6] 황은주. 2006. 『한국의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 현황과 전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a. *An Overview on programs and activities of Reading Groups*. Seoul: The Ministry.
- [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b. *Annual Report on the Reading Promotion*. Seoul: The Ministry.
- [3] Yoon, Cheong-Ok. 2004. "Trend and Significance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With a Focus on Cases of Othe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3): 45-66.
- [4] Yoon, Cheong-Ok. 2005. "An Analysis of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n the U.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7-44.
- [5] Yoon, Cheong-Ok. 2007. "An Analysi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5-32.
- [6] Yoon, Cheong-Ok. 2008a. "The Action Plans for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A Case Study of 'Reading Cheongju'."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1): 63-81.
- [7] Yoon, Cheong-Ok. 2008b. "'One Book' Reading Campaigns in Universities in the U. S. 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85-107.
- [8] Yoon, Cheong-Ok. 2009. "A Study on the Community Reading Campaigns: 'The Big Read'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311-333.
- [9] Lee, Yongjae. 2006. "The Present Stage and Prospects of the Reading Campaign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One Book, One City'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1): 5-25.

- [10] Lee, Yongjae. 2008. "The Present Stage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One Book, One City' Campaign: A Case Study of 'One Book One Busan' Proje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247-265.
- [11] Lee, Yongjae. 2009.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nd Communities through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5-23.
- [12] Cho, Miah. 2007. "An Analysi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Focus on 'One Library, One Book in Seoul'." *Doseogwan*, 62(2): 78-113.
- [13]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A Preliminary Report for the Pilot Project on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Seoul: The Association.
- [14]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9. *Seminar on Reading and Library Promotion Policy for the Community Development*. Seoul: The Association.
- [15]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Reading City: Accomplishment and Task*. Seoul: The Association.
- [16] Hwang, EunJu. 2006. *The Present Stage and Prospect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n Korea*. M.A.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